논어 5편 공야장 21장 · 원문·풀이

子曰：「甯武子，邦有道則知；邦無道則愚。其知可及也，其愚不可及也。」

독음 · 자왈 녕무자 방유도즉지 방무도즉우 기지가급야 기우불가급야

쉬운 풀이(요약) · 영무자는 나라에 도가 있으면 지혜를 드러내고 없으면 어리석은 듯 처신했다. 지혜보다 그 어려운 때의 처신을 본받기 어렵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曰 가로 왈 / 甯 편안할 녕 / 武 굳셀 무 무

邦 나라 방 방 / 有 있을 유 / 道 길 도 도 / 則 곧 즉

知 알 지 / 無 없을 무 무 / 愚 어리석을 우 우 / 其 그 기

可 옳을 가 가 / 及 미칠 급 급 / 也 어조사 야 / 不 아닐 불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